

기지가 커는 소매유통...체감경기 큰 폭 상승

2분기 소매유통 경기전망지수 114...전분기 대비 40포인트 상승 백신 접종에 소비심리 회복 기대...매출 71→115 등 호전 전망 아마존 국내 진출 등 온라인 시장 확대...경쟁력 확보 마련 시급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광주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지역 내 감염 사례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증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데다, 아마존의 국내 진출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소매·유통업체의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6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분기

(74)보다 무려 40포인트나 상승한 114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지역 내 감염증 확산세 완화와 따뜻한 날씨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앞서 광주지역 RBSI는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 2분기(54)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기준치(100)를 밑돌다가 1년 만에 크게 개선됐다.

경영항목별로는 매출(71→115), 수익(72→111), 비용(80→109)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와 계절적 성수기 등에 따른 경기 개선을 기대하며 '호전'을 전망했다. 고용(86→98)은 인건비 상승 및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 감축 등으로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향후 매출·수익의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전망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호전'을 전망했다. 대형마트(55→118)는 지난 분기 부진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망치가 대폭 상승했다. 백화점(100→125)은 집에서 생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가전·가구 등 고가품 판매와 함께 따뜻한 날씨로 캠핑, 골프 등 야외활동 제품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슈퍼마켓(78→117)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근거리 쇼핑 선호 추세와 함께 배달서비스 등 신규 마케팅 본격 추진 등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했다. 반면 편의점(59→94)은 감염증 재확산 가능성과 식자재마트와의 경쟁 심화로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확산함에 따라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온라인쇼핑 시장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60.0%가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7.7%, '현재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2.3%였다. 이밖에 아마존 진출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매·유통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사가 현재나 앞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경영 역량으로는 '상품·가격 경쟁력'(26.2%)을 꼽

았고, '무인·자동화 등 디지털 경쟁력'(20.0%), '입지 경쟁력'(20.0%), '차별화 경쟁력'(20.0%) 등이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유통산업 규제 철폐·완화'(43.1%)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았고, 이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세제 등 지원'(26.2%)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24.6%)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내 감염증 확산세 완화 및 소비심리 회복 움직임에 따라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남아있다"며 "온라인 시장 확대와 유통채널 경쟁 심화 등 업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 업체의 대응전략 마련도 중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12일 함평군 덕림리 나비골농협 육묘장에서 이성희(오른쪽 두번째) 농협중앙회장과 박서홍(맨 오른쪽)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이 열렸다. 지난해 농협은 일손돕기에 11만6000명 임직원을 파견하고 농촌인력증가센터를 통해 154만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올해는 300억원 규모 농기계공급에 농작업 효율화를 높일 방침이다. /함평=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중진공, 수출현지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미래성장분야 중기 100곳 모집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글로벌 전문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현지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진공은 국내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UAE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방역, 미래자동차, 소·부·장 등 미래성장 분야 중소기업 100개사를 모집하며, 업체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30억원이다.

중진공이 운영 중인 수출인큐베이터에서 국가별 특화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현지 전문기관을 발

굴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수출 제품의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런칭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현지화 지원 사업은 미국 K-방역 등 바이오·헬스, 독일 미래차 부품소재, 일본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어 수요를 반영한 현지 테스트와 제품개선 피드백, 신제품 출시와 바이어 매칭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다.

특성과 지원사업은 중국, 베트남, UAE 지역에서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입, 유통소비재 특화 마케팅 및 규격·인증 현지화 등을 돕는다.

이달부터 해외거점별 개별공고로 진행하고, 사업 참여신청 관련 내용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코스닥지수 1000선 돌파...2000년 'IT' 붐 이후 처음

코스닥지수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넘어섰다.

12일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26포인트(1.14%) 오른 1000.65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000선을 웃돈 것은 정보기술(IT) 주 붐이 일었던 시기인 2000년 9월14일(1020.70) 이후 20년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지난해 3월 400대 초반으로 폭락했던 코스닥지수는 바이오·소재와 2차전지 등 소재·부품·소재에 힘입어 지난해 연말에는 연중 저점 대비 158% 반등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현재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4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362억원, 기관이 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95억원을 순매도

했다.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18억5566만주, 거래대금은 11조6509억원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1포인트(0.12%) 오른 3135.59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반등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35.59 (+3.71)
↑ 코스닥	1000.65 (+11.26)
↓ 금리(국고채 3년)	1.140 (-0.028)
↑ 환율(USD)	1124.90 (+3.70)

인터넷진흥원, 5월10일 '정보보호 우수인재' 채용행사

30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우수인력 교류의 장을 오는 5월10일에 연다고 12일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

약'을 맺으면 된다.

협약 기업은 행사 후에도 우수 인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사에는 4개월 2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케이-실드(K-Shield) 주니어' 수료생이 참가한다. 이 교육은 정보보호 특화 실무 교육으로,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실무, 보안장비 운영실무 등을 가르

친다. 인터넷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10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이 중 약 75% 이상이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보호 기업의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기술 컨설팅, 모의해킹, 보안관제 등 7개 직무 기반의 모의면접이 진행된다. 이후 참가 기업에서 채용을 희망할 경우 2차 면접 기회가 제공되는 등 채용 연계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누리집(kshieldjr.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愴**무공, 육지에는 **鄭愴**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총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2021 신간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지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인기리 판매중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5쇄 판매중

정유재란 7주기를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최신간 양장